

2016. 6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6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사	
2016.6.28	대전MBC 대회의실	9/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정철상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김미리 편성
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0	6	-	2	18		18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3	5	-	18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9건	9건	5,6,7
교양	토크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업적 관련 심화된 정보 제공	기적의 테너 배재철(6/19), 상품진열전문가 이랑주(7/3), 예술조경전문가 정정수(7/10) 등에서 심화정보 제공	6, 7월
교양	로드 다큐멘터리 지역적 정서 담아낼 수 있게	<테마기행 길> 제주의 오색오미(6/2), 별이 빛나는 힐링여행(6/7), DMZ안보여행(6/16) 등에서 지역적 특색 활용	6월
교양	특집 다큐멘터리나 기획 프로그램, 특집 행사 등 홈페이지 게시할 때 기획의도 등 프로그램 제대로 알려야	현재진행형인 “2016 한빛대상, 2016 건우적녀축제” 등 특집행사 기획의도 등 일반인들이 프로그램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게시	6월
기타	홈페이지의 사이버 홍보실의 “방송가 사람들”, “프로그램 속으로” 체계화 필요	대전MBC 블로그 M-STORY로 이관 통합처리	6월
보도	뉴스제작시 ‘전향적’으로 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기이므로 교정	“진취적, 적극적”으로 용어로 대체	6월
보도	뉴스 젊은이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SNS뉴스 활용(홈페이지 연계, 현재 실시하고 있음), 포털과 뉴스제휴(네이버 등) 긍정적 진행 중	6월
기타	대전MBC 저평가된 광고가격 현실화 노력필요, 프로그램 경쟁력 뒷받침되도록	2013년 TV전파료, 2014년 라디오전파료 인상, 2016년 7월 1일 토막광고 20% 인상 결실을 봄. 계속 노력하겠음	7월
교양	시사저널리즘 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에서 귀감이 되는 사례 소개해서 밝은 사회 이룰 수 있도록	시사플러스에서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6/16) 등 소개	6월
교양	시사저널리즘 프로그램에서 청년 취업, 창업, 구직자, 자영업자 문제 꾸준히 관심을	시사플러스에서 ‘경쟁과 황포에 시름하는 자영업자’(2015.9.18), ‘일자리창출 해법, 청년창업이 대안?(2016.5.12) 등 꾸준히 다루고 있음	5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6. 5. 31.~2017.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정민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과학기술단체	
위원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랑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과학기술단체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박정훈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6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지난 4월과 5월만 해도 다른 팀의 제물이 되었던 프로 야구 한화 이글스가 지난해의 별칭 ‘마리한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6월부터 5연승, 6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상위 팀과의 승차도 많이 좁혀진 상태다.</p> <p>여전히 꼴찌 탈출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가을 야구의 희망이 눈앞에 와있다. 스포츠 채널의 야구 하이라이트의 그 날 게임의 수훈 선수 인터뷰를 보면, 자신 보다는 동료 선수들 에게 승리의 공을 돌리는 경우를 자주 본다.</p> <p>한 경기, 한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는 코치진과 선수들의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 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p> <p>요즘은 한화 이글스의 경기마다 지역 야구 팬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걸맞게 지역 언론사들도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의 과정과 승패, 이에 따른 원인과 분석, 앞으로의 전망 등등...</p> <p>한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코치와 선수들 외에도 이들을 뒷받침 하는 이들도 많다. 투수들의 훈련과 경기 전 투구 연습까지, 또 투수들의 그 날 컨디션 까지 체크하는 볼펜 포수들(팀 당 3~4 명 정도), 트레이너, 볼 보이, 배트 걸, 마스코트 맨들 ,응원 단장, 치어리더, 경기장 안내 요원들 까지...</p> <p>이들의 일상과 애환, 보람 등등을 담아 경기 소식 사이사이에 전해 준다면 그들에게 자긍심을, 시청자에게겐 호기심과 함께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p> <p>지난 9년 동안 가을 야구와는 인연이 없었던 한화 이글스가 올해는 가을 야구에 동참하기를 많은 야구팬들이 바라고 있지만 더 많은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우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사가 그들의 모습을 속속들이 보여줘야 한다(김학선).</p>	<p>지역 시청자들의 한화이글스에 대한 관심을 감안해 2년째 야구 시즌 매주 월요일 관련 뉴스를 지역언론사 최초로 제작 송출하고 있다.</p> <p>지적대로 보다 심층적인 내용으로 보강해, 한화이글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내도록 노력하겠다.</p>	○		
보도	<p>대전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3회에 걸쳐 기획보도를 내 보냈다.</p>	<p>시청자가 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높</p>	○		

	<p>6.20. [리포트] 초저금리시대1- 수익형 부동산 주목</p> <p>6.21. [리포트] 초저금리시대2 - 절세·장기투자가 답</p> <p>6.22. [리포트] 초저금리시대3 - 반짝반짝 ‘금’ 투자,</p> <p>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인 만큼 일반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현명한 재테크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예금이자를 뛰어 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기존 금융상품 중 비과세 절세형 상품을 통해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 올해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금 관련 상품에 대한 소개로 끝마쳤다.</p> <p>그동안 세계경제는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미국의 양적완화와 금리인상, 일본의 아베노믹스, 각국의 금리인하 카드 등 모든 교과서적인 경제이념을 다 동원하여 경제위기에서 탈피하고자 하고 있으나, 돈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고 부채는 증가하고 경제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제위기는 향후에도 장기간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3회에 걸친 기획보도는 예·적금 납입자 및 예금이자 생활자들의 경제활동에 알뜰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한다.</p> <p>그리고 무엇보다도 6월 26일 시사광장에서 다룬 ‘초저금리시대, 돈의 흐름을 말하다’ 와 연계하여 시청할 수 있었다는 점이 돋보였다.</p> <p>초저금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자금 운용방안에 관련해서는 뉴스데스크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시사광장에서 심층있게 다루어 이를 시청한 시청자에게 경제활동에 관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장백기).</p>	<p>아진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뉴스와 보도 제작물을 마련하겠다.</p>			
<p>보도</p>	<p>뉴스데스크(6.24. [리포트] 자영업 급증.. 빚더미 우려)에서 선부른 자영업의 증가가 대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보도 영상 중 한때 호황을 누렸던 세종시 상권을 내 보내며 지금은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현실과 빈 상가의 모습들을 통해 전체적으로 자영업의 현실과 무분별한 신규창업에 대한 위험성과 경중도 알려 주었다고 본다.</p> <p>그리고 무엇보다도 뉴스 보도 내용의 대</p>	<p>지역 자영업자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보도를 기획해 보겠다.</p>	<p>○</p>		

	<p>표적 사례 지역을 들라면 단연 세종시 일 것이다. 세종시에 가 보면 자영업의 급증과 몰락을 한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한 원인은 많이 있지만 경쟁 입찰로 인한 높은 토지 분양가와 상가분양가, 그로 인한 높은 임대료를 꼽고 있다.</p> <p>결국 높은 임대료는 자영업자의 대출의 증가와 높은 상품가격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겪고 있다.</p> <p>이에 기회가 된다면 세종시에서 창업을 꿈꾸는 이들의 묻지마 창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세종시 자영업자의 급증과 몰락, 그 원인과 해법은?’에 대해 심층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느낀다(장백기).</p>			
교양	<p>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시사플러스에서는(6월 23일)에서는 ‘대한민국의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시의에 가장 적절한 주제가 아니었나 싶었다. 전반적인 내용은 사회에서의 여성 차별에 대한 이야기와 OECD 국가들과의 비교였다. 실제 차별을 받은 여성과의 통화와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시청자와의 공감을 사기 좋았던 것 같다. 전체적으로 회사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차별, 여성들을 위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접근까지 적절히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에서의 부당한 차별 위주의 내용도 좋지만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예 즉, 여성혐오범죄라고 불리는 내용들을 다뤄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p> <p>많은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인 만큼 차별에 대한 해결방법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사례 남성이 느끼는 여성차별에 대한 내용 등이 제공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성정모).</p>	<p>지난해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전히 크나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20년 전 비교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었으나 대한민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5.6%를 현저히 밑도는 36.7% 수준이다. 우리의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경력단절여성이 되거나 채용을 해주는 비정규직에 매몰되는 까닭에 40대, 50대엔 남성 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근로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의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매우 힘겨운 일이 되고 있다.</p> <p>근로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차별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해보고, 이와 함께 여성 범죄를 비롯한 여성 문제의 해법을 시청자들에게 전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데, 앞으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참고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p>	○	
교양	<p>로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테마여행 ‘길’에서 DMZ 안보여행(6월16일)이라는 타이틀로 DMZ를 소개하였다.</p> <p>정승익 사진작가가 청량리 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참신했다. 20년 이상을 군대에서 보내고 국방부에 근무하는 이력도 적당했다.</p> <p>서울-철원 사이를 DMZ 평화열차가 운행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기차로 가는 동안 코레일 승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주로</p>	<p><테마기행 길>은 민방소재 9곳 지역 MBC가 권역을 탈피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10년이 넘도록 공동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각 계열사의 특성에 따라 포맷과 진행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취지아래 향토적 소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DMZ 안보여행’은 춘천MBC에서 제작한 것으로 <테마기행 길>이라는 프</p>	○	

	<p>타는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해 본다던가, 일본인 승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열차 내에서 군복을 입어보는 체험이 가능한 것도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었다.</p> <p>다만, 촬영시간이 문제였는지 승객이 거의 없었던 점은 좀 어색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여행이 계속되었는데 백마고지 전투가 있었던 백마고지가 먼저 소개되었다.</p> <p>전체적으로 DMZ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이색적인 모습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점은 좋았으나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다소 경색되거나 무거워진 점은 어쩔 수 없었다. 오히려 DMZ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주요 주제로 삼고 안보의식을 부주제로 곁들였다더라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성정모).</p>	<p>로그함에 부합하는 구성으로 꾸며졌다. 9개사의 연출자의 의도와 특성이 서로 다른 관계로 일률적이진 않겠지만 지적된 내용을 편성회의 때 전달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p>			
<p>보도</p>	<p>시사광장(6월19일)에서 ‘사회안전망,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최근 사건과 관련하여 원인을 짚어보고, 우리 주변의 사회안전망은 안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점검하였다.</p> <p>전체적으로 현실의 한계를 지적하고 원론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비중이 컸다. 캐나다(버스의 경우 밤에는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시행)의 예를 제시한 것처럼 보다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정민근).</p>	<p>주제가 방대한 상황에서 분야별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를 하다 보니 구체화하는 데 일부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추후 구체적 실천 방안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p>		○	
<p>교양</p>	<p>교양 프로그램인 ‘생방송 아침이 좋다’ 마지막 코너를 보면 시청자참여 문자메시지를 두 명의 MC가 4분여 간 읽는 장면이 나온다. 2명의 MC가 카메라를 보지 않고 글을 읽기 때문에 지루하고 역동성이 떨어진다. MC 1명이 읽으면 다른 MC는 그 내용을 귀 기울여 들으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정민근).</p>	<p>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2MC가 시선처리 하도록 하겠다. 시청자들이 시청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p>	○		
<p>교양</p>	<p>시사플러스(6월9일)에서 국내 최대공원이 조성될 세종중양호수공원 예정지인 장남평야에서 금개구리 집단 서식지가 발견됨에 따라 이의 개발과 보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p> <p>금개구리를 공원 내에 그대로 두자는 환경단체의 의견과 금개구리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중양공원은 시민이용형 공원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었다.</p> <p>프로그램 흐름은 양쪽 의견을 균등하게 반영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환경단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제작한 듯하</p>	<p>최초 프로그램 기획 의도가 논란이 되는 세종시 중양공원 조성 방안에 대한 환경단체와 시민모임 양측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민모임 대표와 처음에 한 차례 연락이 닿아서 시민모임 내에서 인터뷰에 응할 사람을 정해서 알려준다고 했다. 이후 소식이 없어서 제작진에서 시민모임 측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방송 전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모임 측의 의견은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됐던 시민모임 대표의 인터</p>		○	

	<p>다. 방송 이후 세종시닷컴 카페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 상당수가 방송과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금개구리가 금이었다면...”라는 표현에 한 시민은 “도대체 이 멘트는 뭔가요. 결국 세종시민이 욕심을 부린다는 어이없는 말이군요” 그리고 “양쪽 주장 논리적 분석 비교가 아니라 감상적 일방 편들기 방송이네요...” 등의 표현이 있다. 세종시 중앙공원만 고집하지 말고 조치원 중앙공원 및 세종의 모든 공원으로 논습지 생태공원을 확대하여 세종시 전체가 참여와 보존을 위한 관광명소로 만들도록 유도하였다면 더 좋은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신종성).</p>	<p>뷰를 활용하는 것을 대체했다. 그리고 VCR 이후 진행자 멘트를 통해 시민모임 측에서 답변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송 이후엔 세종시 입주자대표회 협의회 측에서 제작진으로 연락을 취해와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으며, 협의회 측에서 금개구리와 중앙공원 관련해서 반론을 제기한 부분의 자료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추후에도 중앙공원 관련 사건 전개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다시 한 번 세종시 중앙공원 논란을 다룰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p>			
교양	<p><반복되는 불산 누출 사고, 대책은 없는가?>(6월23일) 충남 금산에 위치한 불산 취급업체에서 4번째 불산 유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살펴본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불산 조사나 수사상황, 금산군청 대책 등 관계자와의 대화가 모두 전화로 처리되었다. 화학물질네트워크 관계자, 국과수, 금강유역환경청 단장, 금산경찰서 수사과장, 금산군청 관계자 등 관련 인터뷰를 전화로만 연결하여 영상이 아닌 오디오로만 처리한 이유가 궁금하다. 프로그램 구성이 멋있다. 인터뷰는 가능한 직접 현장 취재하여 영상을 통해 프로그램의 기획과 맞게 제작하기를 바란다(이상진).</p>	<p>관련자들에게 정중히, 꼭 필요하다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관계자들이 대부분 난색을 표명해 부득이 전화 인터뷰로 진행하게 됐다. 좀 더 사실적인 취재를 위해서 앞으로 전화 인터뷰를 지양하고 직접 인터뷰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p>	○		
보도	<p>시사광장 진행방식을 보니 사회자가 중앙에 위치하고 패널들은 그 양쪽에 위치하여 토론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회자가 반드시 중앙에 위치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방식을 달리하여 사회자를 측면으로 배치하여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은 어떠한지 패널과 진행자의 자리 배치를 새롭게 짜보았으면 한다(이상진).</p>	<p>현재 세트에서는 사회자 배치가 바뀔 경우 카메라의 구도가 단조로워 지고 찬반이 있는 주제의 경우 화면 구성 등에 어려움이 있다. 프롬프트 활용도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더 고민을 해보겠다.</p>	○		
기타	<p>홈페이지의 <문화행사>란을 살펴보니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다. 문화행사는 지난 행사가 앞부분에, 최근 행사는 뒷부분에 처리되어 있고 갤러리M 안내는 2015년 내용이 올라와 있다. 한빛대상협약식 내용도 2015년 내용이다. 다시 살펴보고 최근 내용으로 수정해주길 바란다(박정훈).</p>	<p><문화행사>란을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고 최근 행사를 앞부분으로 올려놨다. “한빛대상협약식” 내용도 2016년 내용으로 수정 게시해 놓았다.</p>	○		

<p>기타</p>	<p>대전MBC가 주관하고 있는 주말장터가 잘 되고 있다고 본다. 몇 가지 보완할 점이 눈에 띈다. 장터에 펼쳐있는 품목들이 정돈되어 고객들을 맞이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동일한 품목들을 같은 섹터로 묶어서 정리했으면 한다. 현재 토요일 오후 1시에서 6시로 장터가 운영되는데 여름철에도 이 시간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 위생문제 등이 대두된다. 여름철에 청결하게 유지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박정훈).</p>	<p>동일한 품목을 일정 공간에 밀집된 형태로 배치할 경우 판매금액에 대한 담합현상이 많이 발생된다. 백화점이나 마트와는 달리 이곳은 농민이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이 현장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품목을 한 곳에 배치를 하게 되면 각 농가는 가격을 내리고 싶어도 옆 농가의 눈치가 보여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높은 쪽으로 수렴한다. 여름철에 시간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았지만 장터운영시간의 변경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시간 연장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시간이 길어지면 신선도 유지와 농산물 및 가공품 변질위험이 있어 장터운영시간의 연장 또한 어렵다고 본다.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염려가 있어서 여름철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상할 위험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위생문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p>	<p>○</p>		
<p>교양</p>	<p>“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청년취업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창업도 소개를 하고 있다. 창업관련해서는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왕이면 창업자금 문제도 연계하여 소개를 해주었으면 더욱 좋았겠다(강은혜).</p>	<p>청년창업 문제를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창업자금 문제도 같이 다루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p>	<p>○</p>		
<p>보도</p>	<p>6월 27일 뉴스데스크 아이템 구성을 보면 위험천만 불량버스, 불량급식, 앵커거 만난 사람, 브렉시트, 충청권 경제는? 등의 순서로 되어있다. 뉴스의 중요도나 관심사를 볼 때 “브렉시트, 충청권 경제는?” 꼭지를 먼저 소개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 뉴스별류를 평가하며 뉴스 순서를 결정할 때 참고하기 바란다(이승선)</p>	<p>뉴스의 첫 번째 코너는 늘 고민하는 사안이다. 지적한 내용을 잘 살펴 앞으로 뉴스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다.</p>	<p>○</p>		
<p>보도</p>	<p>불량급식보도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한다. 이 꼭지는 관점 및 초점의 문제, 인터뷰 대상자 선정과 문제원인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경우이다. 급식사안에 대해 1년 반 전에 교육행정에</p>	<p>문제의 원인을 찾는 뉴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p>	<p>○</p>		

	<p>대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교육 행정 관계자들의 무관심, 늦장대응이 중요 논점이라고 판단된다.</p> <p>학교측의 영양교사와 조리원의 갈등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편집도 영양사와 조리원의 인터뷰로 정리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약화된 듯하다(이승선).</p>				
<p>보도</p>	<p>앵커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한식 세계화에 나선 볼커트 교수를 소개하고 있다. 이 뉴스에서는 우송대와 연계된 프랑스 폴 보퀴즈 대학의 볼커트 교수와의 인터뷰를 방송하였는데. 협찬을 받고 제작한 느낌을 받았다. 특정대학의 광고효과가 지나치게 나타난다고 판단한다(이승선).</p>	<p>광고효과가 나지 않도록 더욱 뉴스 제작에 주의하겠다.</p>	○		
<p>보도</p>	<p>6월 26일 뉴스데스크에 방송된 “중앙전용 차로 시행 한 달 혼잡 심각” 버스기사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인터뷰를 담았다. 운전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듯 한 인상을 받았다.</p> <p>버스 승객 이용에 대해 일반 시민의 인터뷰는 영상만 모자이크 처리 되었다. 이 경우는 음성변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이승선).</p>	<p>지적사항 수용하고 뉴스 제작에 보다 세세한 주의를 기울이겠다.</p>	○		
<p>보도</p>	<p>뉴스데스크 6월 23일 “필로폰 유통조직 일망타진” 일망타진이라는 단어는 모두 척결했다는 의미가 강하다. 일망타진의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본다(이승선).</p>	<p>뉴스 단어 사용에 더욱 유의하겠다.</p>	○		